

# 천안시 '2030 환경안전 수도 천안' 비전 선포

## 온실가스 40% 감축·도심하천 2등급·공원 접근성 13% 달성



충남 천안시가 6월 5일 제27회 환경의 날을 맞아 '2030 환경안전 수도 천안' 비전을 선포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도시, 지속 가능 순환 경제 도시, 시민 안전 환경 도시 등 3대 목표와 6대 추진전략, 1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도심하천 환경기준 2등급 달성, 공원 접근성 13%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6가지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는 환경안전 수도 기반 구축, 탄소중립 도시 전환, 자원순환 클린 도시 조성, 지속가능 물순환 관리, 스마트 안전 환경구축, 생태 보전 및 산림 복원을 제시했다.

환경안전 수도 구축을 위해 세부 추진 과제를 시행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 환경교육 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시행함은 물론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차질없이 실천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배출환경 개선과 녹색산업 육성, 폐기물 에너지화 등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30% 감축으로 깨끗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물순환 도시를 위해 물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하수관로 신설과 정비, 도심하천 수질 개선, 안전한 물 공급 관리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 위해요인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기후-재해에 안전한 물관리,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를 통해 스마트 안전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태자원과 동식물 보호, 도심 녹지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로 생태 보전 및 산림 복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천안형 전략과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천안시 도심하천인 천안천의 수질 등급은 4등급이며, 공원 접근성은 9.2%다. 천안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1천70만 t이다. ▼



1 천안시청사  
2 '2030 환경안전 수도 천안' 비전을 선포하는 박상돈 천안시장